

나무늘보의 생존 전략 '곰팡이와 동거'

동물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송태준 지음



인간은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지구를 지배하고 동물마저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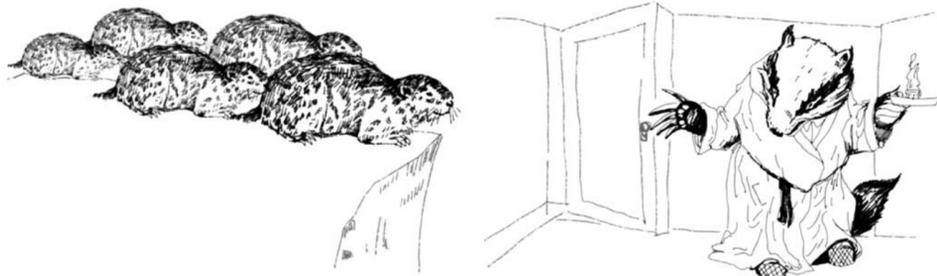
그러나 인간은 두뇌 외에는 어느 것도 동물에 비해 우수하지 않다. 시각, 청각, 후각 등 기본적인 감각은 동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시속 110km를 달리는 차타에서부터 20km 전방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지닌 타조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동물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를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마음도 목욕이 필요해'를 펴낸 바 있는 송태준 작가는 신간 '동물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를 통해 128가지 동물 이야기를 전한다. 한마디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야생에서 찾은 인생의 길잡이이다.

'동물 덕후'인 저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흥미로운 동물들에 대한 지식과 습성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설명하면서 전하는 조언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들이 새겨들을 만 하다.

2008년 5월 중국의 쓰촨성에서 진도



낭떠러지 앞에서도 행군을 지속하는 레밍의 습성은 집단 보호본능에서 비롯됐고, 다른 동물에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오소리의 행위는 자신 대신 천적들이 희생하게 하려는 전략에서 나왔다. <유아이박스 제공>

8.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만약 두꺼비 때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쓰촨성 부근에서는 무려 10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대규모 이동을 하였는데요. 이를 본 주민들이 지진을 예감하여 미리 대피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18시간이나 잠을 자는 느림의 대명사 나무늘보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느림은 의외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활동량이 매우 적어 나뭇잎 몇 개만으로도 식사를 충당할 수 있다. 많은 시간 잠을 자다보니 등에는 곰팡이가 수북하게 자리 잡는데, 이는 천적의 침입을 예방하는 보호색 역할로 작용한다.

특히 저자는 '유지경성' (有志竟成), 즉

꿈이 있는 자는 성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든다. 알래스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1만2000km의 여정길을 오르는 도요새를 예로 든다. 도요새는 장거리 비행에 앞서 먹이를 섭취해 2배 가까이 몸무게를 늘린다. 혹독한 여정을 견디기 위해 목적으로 가는 도중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에서 잠시 쉬기도 한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날치의 습성도 이채롭다. 긴 지느러미는 헤엄치는 데 방해가 되지만 날치는 수면 위로 솟아오르도록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엘버트로스는 특수한 날개구조 때문에 이착륙이 쉽지 않다. 바람을 거세기 않는 이상 비상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하늘을 나는 자유를 누린다.

도롱뇽을 통해서만 미련 버리기

의 함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관계에 굴복한 나머지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롱뇽은 위급할 때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 경이로운 것은 도롱뇽은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뿐 아니라 장기들까지도 재생이 된다.

재앙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큰 재산이 된다는 '전화위복' (轉禍為福)의 사례도 제시한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가재는 끊임없이 강해지기 위해 애를 쓴다. 성장하기 위해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낡은 표피층인 허물을 온전히 벗지 않고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128가지의 인생 조언들은 당신에게 더없는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다.

<유아이박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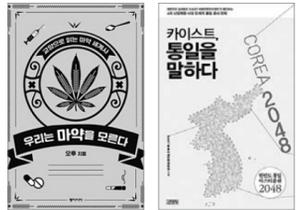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마약'은 법적인 개념이다. 똑같은 물질도 어느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마약'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제각기 다른 물질들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재미있는 사례들을 엮어가며 설명한다.

<동아시아·1만5000원>

▲카이스트, 통일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2018년, 1국가 1체제의 완전한 통일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 기관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준비한 단계적 통일 전략이 담겨 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발행해온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의 특별판이다.

<김영사·1만8000원>

▲보이지 않는 경제학= 이 책에서는 국가의 부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성장 지향의 경제에서 나눔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나 '사회적경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금융시장을 어떻게 정의한다. "금융시장은 노동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경쟁하면서 실물산업이 생산한 부를 재분배하는 시장이다. 금융시장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과 시세차익이다."

<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인형= 이 책은 매년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알바니아의 작가 이스마일 카다레가 자신의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유년기를 중심으로 쓴 자전소설이다. 카다레 가문으로 갓 시집을 어머니의 새신부 시절 모습부터,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 자신과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특유의 유티와 냉소로 재구성해나간다.

<문학동네·1만3000원>

120여개 필명으로 스스로를 '해방' 시킨 천재 작가

페소아

김한민 지음



"삶이란 우리가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행이란 결국 여행자 자신이다."

페루난두 페소아(1888-1935)의 말이다. 포르투갈의 시인이자 평론가이며, 철학자였던 페소아는 기이한 천재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세기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문학 비평의 권위자 해럴드 블룸은 '서양 문학의 정전'에서 페소아를 셰익스피어, 괴테, 조이스, 네루다 등과 함께 이름에 올렸다. 페소아는 세계 문학계에서 더 이상 낯선 인물이 아니다.

계간지 '엔본의 일'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페소아와 페소아들'을 번역했던 김한

민 작가가 신간 '페소아'를 펴냈다. '리스본에서 만난 복수(復數)의 화신'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기이한 천재작가의 삶과 예술을 담는다. 즉 100년 전의 인물 페소아와 동시대인으로 만난, 깊이 있는 기록이다.

페소아는 자신의 본명 말고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창작활동을 했다. 집계된 이름만 120여 개 이상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異名)은 알베르투 카에이루, 리카르두 레이스, 알바루드 캄푸스를 들 수 있다. 문학사에서 가명을 쓰며 창작활동을 한 이들은 여럿 있지만 페소

아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다양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설계한 경우는 없었다.

저자에 따르면 페소아는 여섯 살 무렵부터 다른 이름의 인물을 삶에 도입했다. 고교시절에는 더욱 본격화돼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써서 발표했다. 1914년에는 대표 이름(異名) 삼인방이 등장해 창작 활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에게 서로 다른 이름은 "다양한 나를 해방시킨 창작기계"인 셈이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했던 것도 페소아이지만, 이 모두에게 무대를 내주고 자신을 비웃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 것 역시 그였다. 한마디로 그는 잘 놀았던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시인이었다."

'페소아' (pessoa)라는 그의 성은 포르투갈어에서 '사람'을 뜻한다. 그 어원인

페르소나가 '가면'을 의미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연관성은 기막힌 우연에 다름 아니다. 또한 페소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페르손느' (personne)가 되고 이는 '아무도 없음' (nobody)을 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학적'이다.

한마디로 페소아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세계다. 작품 세계의 풍부함은 신비로운 미로와도 같다. 저자는 "할 이야기가 하도 많고 고르고 편집하는데 품이 들 뿐"이라고 설명한다.

페소아의 활약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문예지 활동'의 모습이다. 그는 뜻이 맞는 동료 문인들과 문예지를 만들었다. 1915년 잡지 '오르페우'의 해라고 명명될 만큼 의미 있는 해였다. '오르페우'는 단 두 호만 발행했지만 포르투갈 모더니즘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르페우'를 통해 발굴된 '오루페우' 세대는 향후 포르투갈 문화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arte·1만8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세상을 바꾼 여성 과학자 50=미국에서 출간된 후 수많은 매체의 찬사와 독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책이다. 유명한 인물부터 숨은 인물까지, 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인물을 선정한 점이 돋보이는 이 책은 과학사의 중요한 발견을 해낸 여성 50인의 삶과 그 의미를 한 페이지씩 치밀하게 담아내고 있다.

<길벗어린이·1만7000원>

▲아이스크림이 꿈꿨= 이 책은 고양이와 아이의 특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구도 노리코의 '우당탕탕 아옹이' 시리즈 제5권이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찾아 새하얀 얼음 나라에 간 아옹이들이 시리즈 사상 최대의 모험을 펼친다. 노란 털, 볼록 튀어나온 배, 짙막한 팔다리에 뭔가 궁궁이가 담긴 듯 오묘한 표정을 한 여덟 마리 아옹이들은 생김새도 귀엽지만 하는 짓도 엉뚱해서 한순간도 눈을 땄 수 없을 것이다.

<책읽는곰·1만1000원>

▲내 마음의 지도책= 초록 도시와 풍선껌 화산, 소원의 미로, 비타민 호수, 분실물 보관소 사막, 달콤한 섬들... 이것은 상상 세계 지도에 있는 특별한 장소들이다. 이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정상이고, 가능한 일은 환상의 다리 근처에서 뒤엎겨 버린다. 이 책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어른과 어린이, 누구나 '꿈'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이다.

<폴과바람·1만2000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